진리 평화 창조

발행인 김 동 선
편집위원 김 영 필
편집장 윤 석 진
발행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신문사
전화 ☎ 7128 (직통)
131 서울동대문구이문동270-1
인쇄인 조선일보사 방 우 영

외대학보

(1958. 3. 27. 제 3종우편물인가)
(등록번호 제 다 253호)

제370호
<주간>
1983년 6월 10일
매주 금요일 발행
(1년 구독료 5천원)
등록 1960년 7월1일
확인 1955년 4월11일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우리말의 쓰임새 (38) 약바르다

약바르다의 뜻은 「약고 영리하다」이다. (예 : 나는 약바르게 말을 앞으로 내놓았습니다) 비슷한 말로 약사바르다, 약삭빠르다, 약싹바르다가 있지만 약삭빠르다가 많이 쓰인다. 약삭빠르다의 사전적 풀이는 「꾀가 많고 민첩하여 눈치가 몹시 빠르다」이다. 부사에는 약삭빨리, 약삭빠르게, 약삭스레, 약삭스럽게 등이 있다.

너무 약삭빠르면 밉상이고 너무 굼뜨면 답답하니 적당히 약삭바를 일.

다음학기 수강신청 기말시험전에

2학기 수강신청 28·29 양일간

조속한 면학정착과 능률적강의 진행위해

교무처는 종전 매 학기초에 하던 수강신청을, 학기중간에 다음학기의 수강과목을 신청하도록 일정을 변경한다.

변경내용은 다음 2학기수강신청을 금번 1학기중에, 다음 1학기 수강신청을 그 전의 2학기중에 실시하도록 하여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1, 2학년이 6월 28일 3, 4학년이 6월29일(수) 양일간에 걸쳐 실시한다.

김영조 교무처장은 『그동안 개학과 더불어 신학기초에 수강신청을 해온결과 행정처리기간이 짧아 강의실, 분반등에 인원수 배정이 어려울뿐 아니라 교재준비등에 문제점이 많았다』고 전제하고 『면학분위기의 조속한 정착과 강의진행의 능률적,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이 방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교무처는 그동안 이련점을 감안 조기수강신청을 고려한바 있으나 준비미비로 이뤄지지 않다가, 『문제점들이 누적되자, 충분한 검토후에 결정을 내린것』이라고 밝혔다.

교무처는 이같이 방학전에 다음학기의 수강신청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①강의실 적절배정

②강좌당 수강인원 사전파악및 분반조정

③교수, 강사 적정확보및 배정

④교수담당시간 조정등을 방학기간을 활용해 적절분배할 수 있다는 점과

⑤수강신청 변경일자 단축 ⑥정상강의 조기정착

⑦학생들의 다음학기 수강과목에 대한 수학준비 용이등의 이점이 있을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수강신청 결차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담임 각 학과장실에 비치된 강의시간표, 수강신청카드및 OMR카드를 교부받아 수강신청카드및 OMR카드의 기재후의 사항대로 작성, 학과장및 부전공지도교수의 확인인을 받은후 각 학과에 제출하면 된다. 수강신청학점범위는본면학생공히 각학년, 학과에 해당되는 최대수강 이수학점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이번학기 성적평가후 제한학점을 받게 되는 학생은 다음학기초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변경해야 한다.

이번 기간중에 수강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강좌담 수강

2학년 전면휴강 여학생 체육제외

교무처는 83학년도 2학년 남학생의 전방부대 교육및 경계근무 기간인 6월13일부터 18일까지 여학생 체육을 제외한 2학년의 교과목을 전면 휴강할 예정이다.

벨기에대사 도서98권 기증

고전 음악등 음반 12장도

지난 5월25일 「마르셀 방회이 (Marcel Van Roey)」주한 벨기에 대사는 본교에 도서 98권을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된 도서는 소설, 시집등 문학작품과 화집, 화보, 만화로 그 종류가 다양한데 벨기에의 「아가사 크리스티」 마 셜리우는 「시모농」의 탐정소설과 화가 「루벤스」와 「졸·밀브」의 화집을 비롯, 정교하게 장조해낸 수제품의 예술성을 표현한 「리에즈 루기페조장의 4세기 역사」 희귀본과 세계 50여개국에 번역되어 어린이들로 부터 70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애독되었던 만화 「틴틴」등 주로 불어로 된 도서들이다.

그밖에 상송과 고전음악이 담겨져있는 음반 12장과 안내책자 11권도 함께 기증했다.

「상설전시관」 마련절실

현재 교양학관·학생회관 휴게실 이용

본교의 10여개의 서클이 매년 1~2회의 전시회를 갖고 있는데 매회때마다 장소선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어, 이의 대책마련과 상설 전시관의 설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난해 서클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학교측은 교양학관에 상설 전시관을 설치해 줄것을 약속 하였으나 사실상 무산되었으며, 그후 아무런 대책이 없는 형편이다.

현재 미술반, 사진반, 원리연구회, P. T. P., 선교연합반, 산악반, 서우회, 스키반, 가톨릭 학생회등이 매년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갖고있는데, 주로 학생회관 1층로비와 교양학관 1층로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을 전시회장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예정일자보다 늦게 허가나는점, 원하는 장소로 허가나지 않는점등 장소선정이 어렵다는 것이 첫번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의 경우 P. T. P.는 7일부터 열리고있는 전시회 장소로 교양학관 1층과 대강당을 요구했으나, 모두 취소되고 결국 학생회관 1층로비로 허가 난것이 그예이다, 또한 장소가 선정했다 하더라도 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도 배와 조명시설설치, 전기 테이블 구입등을 학생이 직접 해야하는 실정이며, 이렇게 꾸민다 하더라도 예술적인 구조가 이뤄지지 않을 뿐아니라 대부분 전시회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전시회를 로비에서 할경우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휴게실 공간을 빼앗아 학생들에게까지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전시관이 고정적으로 설치될 경우 수시로 구경할 수 있어 충분한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과 각 서클이 한꺼번에 같은 기일에 몰리는 일도 예방할 수 있다.

전산과 종합3위 연합 체육대회서

제2회 전국 전산학 연합체육대회에서 본교 전산학과가 처음 출전하여 종합 3위를 차지했다.

6월 5일 경기대 수원캠퍼스에서 실시된 이번 대회는 9개교가 참가했는데 본교는 이밖에도 입장상및 특별상도 차지했다.

프랑스대사초청강연

「프랑스와 미테랑의 정책」

◇300여명이 참가, 질의 응답시간도 가졌다.

6월 8일 (수)13 : 00에 본교 교양학관 105호에서 주한 프랑스 대사 바이에(BAYES)씨의 초청강연회가 있었다.

이번 강연은 본교 불어과의 주최로 열렸는데 「프랑스와 미테랑의 대외정책」이라는 주제아래 약 1시간반에걸쳐 계속되었다. 강연내용은 「프랑스의 NATO 탈퇴배경 미테랑 정부의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말하고 「미테랑 사회당 정부와 남·북한에 대한 편견없는 입장」도 아울러 표명했다.

또한 이번 강연에는 본교생 3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으며, 30여분동안의 질의·응답시간을 갖기도했다.

어문대학 정상수업

수업거부 8일만인 7일 부터

요구사항 구체적 답변못얻어

지난 5월25일부터 시작되었던 용인캠퍼스 어문대학생들의 수업거부사태는 6월2일 8개학과의 수업이 이루어지면서부터, 6월7일에는 13개학과 전체학생들이 수업에 참가하고 있다.

6월1일 과회장들의 합의에 의해 6월7일(화) 까지 학교측의 답변을 요구하고 시한부 수업참가를 결정했으나, 7일 학교측에서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학생들 스스로가 수업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6월7일 몇개 학과는 과총회를 열어, 학생들의 의견을반영 계속적으로 수업거부를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곧수업에임했으며, 「대부분의 학과가 수업에참가하고 있으며, 더이상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수업거부를 할 경우 피해만을 초래할 것 같아 수업거부를 철회한것 같다」라고 일부 과회장들은 수업에 임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몇몇 과회장들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학교측은 수업참가이후에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사태후의 사후처리문제도 6월 8일 현재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교문에 교패 설치

6월 3일 오전 현판식

◇한자 (漢字) 와 영문 (英字) 표기로 된 교패의 모습.

새로 제작된 교패의 현판식이 6월3일 오전 11시 김동배이사장, 김동선총장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지난 1980년 5월10일 정문확장공사를 하면서 종합대학으로 승격할 것을 고려, 칠거하였던 교패는 그동안 학생들의 계속적인 건의에 따라 연구, 계획되어 이번에 현판식을 갖게된 것이다.

이번 제작된 교패는 중남의 부식대리석으로 가로 150㎝, 세로 75㎝, 두께 6㎝의 크기이며 한자(漢字)는 서예가 여초 김응현(金應顯)씨가, 영자(英字)는 미 8군 차트사 정인주씨가 각각 맡아서 음각으로 제작하였다.

이번 교패의 여초 김응현씨의 휘호는 2개의 표구로 제작해 이문캠퍼스에는 총장회의실, 용인캠퍼스에는 본관의 현관에 걸었다.

용인 F. B. S영화제 1일부터 3일동안성료

용인캠퍼스 교육방송국(F B S) 은 개국 2주년 기념으로 Pop Concert와 영화제를 6월 1일부터 3일까지 신관 1401에서 가졌다.

매학기 5백불 장학금

1명에 등록금 전액지급

재 인도네시아 동문회

재 인도네시아 본교동문회 (회장 · 오세윤)는 82년 1학기부터 매학기 500달러를 보내와 마인어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83학년도 1학기에도 500달러를 보내와 윤선애(M · 3) 양이 지급 받았으며, 2학기 때부터는 한명분에 한하여 등록금전액을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6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동문회는 겨울방학을 이용, 본교 총동문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모교 교수를 초청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81년초부터 보내온 학술자료도서, 월간신문 (Compas) 잡지 (Tempo) , 주간지상도 계속 보내줄예정이다.

P. T. P 전시회

본교 국제민간의교반(P. T. P)은 6월7일 (월) 부터 6월11일 (금) 까지 학생회관 1층 로비와 시청각 건물 2층에서「국제이해 전시관」및 「쉴틴페스티발」을 각각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외대생들의 국제적 이해와 친선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는 세계 30여개국의 각종 화보및 판넬, 국화, 시화등 전시하고 있으며 시청각교육원에서는 8개국의 영화상영을 통해 각국의 전통문화및 역사를 소개한다.

한편 용인 캠퍼스 국제민간의교반 (P. T. P) 은 제2회 P. T. P 예술제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오후 5시 30분부터 열리는데 1부행사로「제계문학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칠레, 서반아어, 포어, 독어, 노어등 5개국의 월어 시낭송과 유명, 중창단으로 진행되며 2부 행사로는 「페스티벨버그 월국의 「명곡작가」라는 연극의 공연되고 학생들을 위한 행운권 추첨도 있을 예정이다.

이번 예술제에는 작년도 대학가요제 입상작인 바흔작 (S · 3) 양이 직접 출연하며 고전기타반의 축경호 (E · 3) 등이 참조출연 한다.

▲어문대학 수업에 참가 —전인사태결행할것가?

▲수강신청 학기중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중요.

벨 의 자유

경쟁과 승패

▲이리히 프롬은 현대사회를 가리켜 절단되고 차단되며 부유하는 파편과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하면서 인간이 소외감에서 파괴한다고 하였다. 인간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경쟁에서 패배하거나같은 단체나 사회에 있으면서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의 도구들으로 남에게 이용되다는 의식을갖게될때이다

이러한 소외감의 결국 극단적인 파괴이나 극단적인 폭력으로 흐르게 된다. 오늘날의 사회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경쟁속에서 살아가는 적자생존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사회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을 인식하고 그 경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우리의 주위에 존재하는 경쟁은 그 상대나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자신의 생존에 직결되는 경쟁도 있으며 사소한 문제의 취득을 위한 경에서 살고있고 세계 는 무정도 있다. 경쟁의 결과가 자신이 투여한 노력의 댓가와 비교할때 엄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물론 인간개인이 목값은 대상을 점하고도 느끼는 강도에 있어서는 심성의 주관적 전해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고통을참아내며 경쟁을 한 결과가 큰 대의나 거시안적으로볼때 미약한 것이라면 그런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일한 인간은 살아갈수없어진 것이 오늘날의 사회이다. 경쟁에서 어떻게되든 쓰려진다면 패배이다. 그것에 다 구차한 명분을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패배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는 패배해서는 안되는 위치에 있다. 그렇다고 권모술수나 중상모략으로 승리를 이룩하자는것은 아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이 한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력을 지녀야 할까지 이기자.

<허남헌>

제1회 외대학술상

6월15일로 마감박두

본보에서는 학내 면학풍조정을 정착시키고, 학생들의 의욕있는 탐구연습기일 증 북돋우며, 건단 인문, 사회, 자연과학분야의 혹넓고 새로운 학술연구를 진작시키는 일환으로 제1회 외대학술상을 마련하였읍니다.

현 학술분야의 급변하는 상황에 접신하고 학교한기상을 정립시킨 창의적인 논문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부문 : 인문과학분야, 사회과학분야, 자연과학분야

원고매수 : 각 90~100매내외

제 출 처 : 외대학보학술부 (학생회관 309호)

대 상 : 본교재학생 (대학원생포함)

원고마감 · 1983년 6월15일

시상 : 각 분야별로 당선작 시상

상금및 심사위원 : 추후발표

외 대 학 보

一九八三學年度 後期

各大學院 (男女) 學生募集

大學院 (晝間)

一、募集學科

①碩士學位課程…英語科·佛語科·中國語科·獨逸語科·露語科·西班牙語科·日本語科·伊太利語科·阿拉語科·印度語科·國語國文學科·亞洲地域研究學科·中南美地域研究學科·中東地域研究學科·東歐地域研究學科·北美地域研究學科·政治外交學科·行政學科·法學科·貿易學科·經濟學科

②博士學位課程…英語科·佛語科·中國語科·獨逸語科·西班牙語科·日本語科·阿拉語科·政治學科·經濟學科·經營學科·政治外交學科·國際關係研究學科·行政學科·經濟學科

二、願書交付및接受 ||1983年 6月13日(月)~6月30日(木)

三、試驗日時 ||1983年 7月8日(金) 午前 10時

※在學中 成績이 優秀한 者는 學部 各科의 助敎로 採用및 研究補助金을 支給함

詳細한 것은 本大學院 敎學課에 問議할것

電話 (直) 965-7117 (交) 967-1811~9(246)

貿易大學院 (夜間)

一、募集人員 ||碩士學位課程 80名

二、募集學科

①經營學碩士 ||貿易學科·國際經營學科·海運經營學科

②經濟學碩士 ||國際經濟學科·國際地域研究學科

三、試驗科目 ||①論文 ②外國語(一八個語中 擇一) ③面接

四、願書交付및接受 ||1983年 6月7日(火)~6月23日(木)

五、試驗日時 ||1983年 6月25日(土) 午後 2時

※非商經系專攻者도 入學할 수 있음

其他 詳細한 것은 本大學院 敎學課에 問議할것

電話 (直) 965-7118 (交) 967-1811~9(249)

教育大學院 (夜間)

一、募集課程 ||敎育學 碩士學位 課程

二、專攻分野 ||英語敎育·佛語敎育·獨語敎育·日本語敎育·韓國語敎育·倫理敎育·商業敎育·學校相談·敎育行政 (各專攻 若干名)

三、試驗科目 ||①筆答試驗(專攻) ②面接

四、願書交付및接受 ||1983年 6月7日(火)~6月23日(木)

五、試驗日時 ||1983年 6月25日(土) 午後 2時

※②現職敎師는 特別配慮

③敎育學 碩士學位 取得者는 中等學校 1級·2級 正敎師資格證을 받을 수 있음

其他詳細한 것은 本大學院 敎學課에 問議할것

※位置 ||鞋경 電鐵驛前

電話 ||(直) 213-6881 (交) 967-1811~9(262)

韓國外國語大學校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里門洞 270-1

수구파(守舊派) 경제정책의 본질

박 찬 일

<경제학과교수>

1. 서

이글은 개항초기 수구파 경제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한 것이다. 1876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외압에의하여 근대적 국제경제 관계에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한·일간의 반식민지적 조계무역이 중심을 이루었다. 1882년 임오군난을 계기로 한반도지배를 둘러싼 국제경쟁상황은 외국군대의 경성주둔을 허락하였으며 봉건 한국은 청의 영향하에 들어갔다. 외압에의한 근대적 국제경제관계는 이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임체적으로 대응하려는 지배층세력은 청의 영향하에서 개화파와 수구파로 갈라지기시작하였으며 권력구조는 수구파주도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외압적 근대국제경제관계에 대응하려는 경제 정책은 곧 수구파의 경제정책이며 개항초기 근대적 경제정책인것이다. 그것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있으며 따라서 본질은 무엇인가를 사료에 기초하여 살펴보고자한다.

2. 재정위기하의 화폐정책과 그 실패

—인플레이션적 담오전정책과 경제파탄—

외압적 개항이 본격화됨에따라 봉건정부의 재정위기는 더욱심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담오전주조의 화폐정책은 이를 극복하기위하여 나타났다(주1).

재정위기의 원인은 개항에따른 행정비의 증대 (주2) 세정의 문란 (주3) 왕실의 낭비(주4) 등이었다.

재정위기를 극복하기위한 담오전의발행은 그성격이 재정인플레이션 그 자체이었다. 즉 담오전의 발행은 그명목가치가 실질가치로 하락할때까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이는 민중을 수탈하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하였다. (주5) 실제로 당시의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100퍼센트에 가까운 악성인플레이션이었다. (주6)

담오전주조의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첫째 전원국은 관주전매이면서 사주전소혁이었고 악화를 제조하고 온화는 제조되지아자자 고급관료가 사취하고 퇴장하였다. (주7) 둘째 평양주전소는 민씨일문의 사주전소로되어버리고 민중식은 악화남주의 특권을가지고 1년도 못가 놀라운 부호로되고 민문의 원로 (장자) 로되어 권위를 크게 떨치었다. (주8) 셋째 민씨일파의주관이라고알려진 조재하, 한규복이알았던 강화주전소는 비교적 양질의 담오전을 주조하여 인천무역의 표준화폐로 유통되었으나 곧남주가 시작되어 일시중단되었다. (주9) 넷째 전원국적영의 경성주전소는 민태호 민영목 윤태준등이 관리자이었으며 경성담오전의 화폐가치는 평양담오전의 2배에 달하였다(주10) 다섯째 본위화폐=은화는 권문세가에의해 퇴장되었으며(주11) 주한청군도 주전에개입하여 착복 하였다. (주12)

그러면 담오전정책의 귀결은 무엇인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구파에 의해 주도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반성인플레이션을 야기하여 민중의 경제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세수입이 격감하여 재정위기는 극복되기보다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 경책이 실시되기에앞서 담오전 주조논쟁이 전개되었는데, 이것은 최초의 근대적 화폐정책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논쟁의 주체는 외형상 김옥균과 퍼렌도르프이었지만, 실질상 개화파와 수구파바꼬알 것이다. 후자는 담오전 주조론을 주장하였고(주13) 전자는 본위화폐제를 주장하고(주14) 담오전안은 재정위기를 타개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재정위기대책으로 300만엔대일차관도입론을 제시하였다 (주15). 이 논쟁의 결과과정에는 주한청군도 개입하였고 수구파의 책모도 있었다고 한다 (주16). 이 논쟁에서 김옥균의 이론이 승리하였지만(주17) 정책실시과정에서는 수구파가 승리하였으며, 이는 권력구조의 수구파 장악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주18).

(주19). 이것은 국내상인 자본의 무역자본으로의 발전을 생산력및 자본력 때문에 저해하는 것이었으며, 그간에 이루어진 조계 주변의 내생적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이 국민적 시장권의 일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의 지배 삼구조의 일환으로 재편되는데 기여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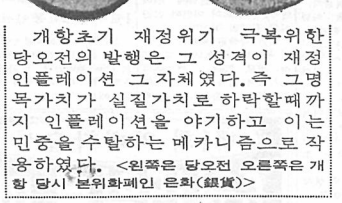
세째로 차관정책이 중요한데 개항에 따른 경비부담을 차관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이는 국내의 경제적이굴을 양도하는것으로 표십을 빌었다. (주23)

네째로 중요한 것은 해운정책인데, 그특징은 국내해운자본육성정책부재하에외국자본에의한 국제경기항로의 개설이었

1882년 한·미 수호 통상조약을 계기로 외압적 통상 협정이 계속 체결되자 수구파는 퍼렌토르프와 결합, 여러가지 경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수구파는 부패한 권력 지배층

무역은 반(半)식민지적 조계무역의 형태로



개항초기 재정위기 극복위한 당오전의 발행은 그 성격이 재정인플레이션 그자체였다. 즉 그명목가치가 실질가치로 하락할때까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이는 민중을 수탈하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하였다. <왼쪽은 당오전 오른쪽은 개항 당시 본위화폐인 은화(銀貨)>

3. 외압적 통상 협정체결하경제정책과그실패

1882년부터 한미수호조규, 한영수호조규, 한독수호조규, 한중상민수륙무역장정등이 체결되어 본격적 국제통상 관계가 전개될 단계에 이르렀다. 여기서 제기되는 국제정제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구파는 종리교섭통상협판 퍼렌토르프와 결합하여 여러가지 경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주요 경책별로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은 반식민지적 조계무역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들째로 중요한 것은 해관제도의 정비와 관세정책인데, 그내용은 관세자주권의 상실이었으며 외국인에 의한 해관제도의 정비및 운영 즉 해관지배권의 상실이었다. (주20) 뿐만아니라 재정관세제 경리에 불과한 관세수입마저도 낭비적으로 지출되었다. (주21) 또 퍼렌도르프는 종세무사로서의 위치에 불구하고 일본자본과 결탁하여 관세포탈의 기회를 주었다는것이다. (주22) 관세자주권의 상실은 한국이 외압상황의 시장화를 가져오며 자주적 공업발전을 발달시키는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경우도 광산개발권양도를 조건으로하는 것이었다. (주24) 이것은 한국의해상운송과 수입무역이 영국에 장악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주25)

다섯째로 중요한것은 광산개발정책인데, 특징은 자국자본에의한 광산개발이아니라 외국자본에 의한 광산개발정책이었다. (주26)

여섯째 외국자본에의한 공업진흥정책을 실시하였는데 모두 실패하였다. (주27)

일곱째 수구파는 퍼렌도르프의 권고를 받아들여 외국자본에 의한 양잠진흥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실패하였다. (주28) 또 연초재배를 위하여 독일인 크니플러르하여금 토질조사를 하게하였으나 상당한 자본이 투입되기전에 이계획은 포기되었다. (주29)

끝으로 자주적 경제근대화의 사회문화적 인건으로 교육정책은 매우 불통하다. 퍼렌도르프는 1천만 주민을위하여 800개의 국민학교, 84개의중학교 그리고 서울에 자연과학, 외국어 및 공업을 위한 전문학교 하나씩을 설치할것을 권고하였는데 (주30) 수구파 권력구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외국어교육기관의 설치만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약40명의 생도를 모집하여 약 2년간 운영되다가 퍼렌도르프가 떠나자 폐교되었다. (주31)

4. 결 어

이상에서 우리는 낡삶의 경제정책들의 내용을 살펴 보았다. 이것들은 자주적 경제근대화를 기초로하는 수출지원정책 수입제한정책, 이러한 정책에 바탕을둔 상업적 농업의 발전, 공업화추진을 내용으로하는 상상주의경제정책의 본질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것이었다.

들째, 따라서 수구파의 경제정책은 명치유신기의 식산업경책적 본질도 전혀 내포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세째, 이러한 수구파 경제정책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경쟁권력구조와 수구파자체의 국내권력구조의 성격에의하여 제약받는 것이라고 보인다.

네째 수구파는 부패한 봉건적 권력지배층이었으며 따라서 그 경제정책을 중국의 양무파의 중체서용책 경제정책의 내용과 흡사한 것이 매우 많았으며 오히려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많았다.

따라서 다섯째 수구파 경제정책은 양무파와 국제경쟁적영향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봉도서기적 경제정책의 명아에 불과하며 양무파 경제정책의 아류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실제로 중체서용과 봉도서기는 동일한 이데올로기의 상이한 표현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치적 성격의 타당성을 보다 확고하게 얻기 위하여 여는 앞으로 이를 수구파의 사상과 이를 정책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주1. 승정원일기제399책 고종20년 (1883년) 3월6일안참조.

주2. 김광진(이조말기 조선의 화폐문제, 1934) P301~302 및 김옥균 (개항전 일기와 재정분석, 1977) 참조. 임오군란의 배상금, 해외사절및 개화파의 일본파견비, 부산·원산·인천의 개항비, 무기구입비, 신식군대설치비등.

주3. 고종실록 권27, 27년 12월 2일안, 공세에대한 아전의 매천아특권. 1, 상, 갑오이전안 관료와 아전의 결탁, 민결호의 부패등.

주4. 매천야특권 1, 상, 갑오이전안.

주5. 같은책 같은안 참조.

주6. 김대식, 운권집 권68.

주7. 박찬일 (개항초기 인플레이션의 성격, 1979) P P 359~360참조.

주8, 9, 10, 11, 12. 고균기념전집, 『김옥균전』 상권, P 266, P 267, P 267, P 267, P 268, P 268.

주13. 승정원일기 고종20년 (1883) 4월11일안.

주14. 승본정기, 김옥균상권, P 38.

주15. 승정원일기, 고종20년 (1883) 4월11일안.

주16, 17, 18. 고균기념전집, 김옥균전, 상권 P 249~250. P 251, P 251및 P 254및 P 255.

주19. 각국과의 통상협정내용 참조.

주20. 퍼렌토르프부인전, 퍼렌도르프수기, 고병익역, 전단학보 제24호 P 154와 P 164 참조및 구한국외교문서 제1권, P 96참조 및 최태석 『개항전기의 한국관세제도』 한국연구월간 참조.

주21. 고균기념전집, 같은책 P 263 참조.

주22. 조기준, 『한국자본주의성립사론』 P 108 참조.

주23, 24. 퍼렌트르부인전, 같은책 P 161, P 162.

주25. British Diplomatic and Consular Reprt on Trade Finance; Korea, 1883.

주26. 퍼렌토르프부인전 같은책 P 162참조 및 P 165 참조 통서일기 제1권 고종20년 (1883) 10월15일및 17일 안. 통서일기 제3책 고종21년 (1884) 5월11일, 6월4일, 6월23일, 6월30일, 7월1일 및 7월21일안 참조.

주27, 28. 퍼렌트르프부인전 같은책 P 162~P 166. 『KOREA Review』 Vol. I, P 248~P 250.

주29. KOREA Review Vol. I, P 248~250.

주30, 31. 퍼렌트르프부인전, 같은책 P 166 및 평택국, 『명치사조 일한청관계의』 연구』 P 370 한성순보 1884년 2월21일안 P 3 참조.

▲이논문은 지난 5월28일에 열린 전국역사학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필자가 요약한 것이다.

광 신 안 경

스웨덴강철
스피도금니
스웨덴렌즈
실험실가공 · 수리 · 조립 · 판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1-1 ☎ 744-2223

개강 每月1日 (주·야)
各種高試 対備講座

司法試験·行政·外務·技術高試
★綜合班·単科班(2個月完成)
科目：憲法·行政法·刑法·刑訴法·民法·民訴法·商法·英語·国史·国民倫理·政治学·民総·経済学·行政学·文化史·会計学·財政学·量的理論
時間：16:30~22:10(매일 강의함)
各種資格試験 対備講座
公認會計士, 公認鑑定士, 税務士, 土地評價士,
★綜合班·単科班(2個月完成)
◎時間：16:30~22:10(주시간주·야강가함)
◎科目：税務士：会計学·財政学·税法(I부, II부)
会計士：会計学·会計理論·原價計算·経済学·商法·英語·経済学
鑑定士：会計学·経済学·民総·鑑定評價理論·実務
高試英語 담당 李 南 秀
대상：司試·行試·外試·技術高試 会計士·大学院·社·外·師対·韓国語
시간：16:30~18:00(매일강의 함)
교재：本学院 독수 print교재
7·9級 公務員 (주·야)
行政·税務·外務·法院·検察·警察行政 全国最多 合格率/年中無休 講義/公務員 및 資格試験 講座 專門
行政考試學院
서울종로구공평동64(화신옆한국동쪽50m)
TEL.724-9484, 723-6841, 722-3053

이곳은 미국 유럽대학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 여기는 유학센타가 아닙니다.
● 어떤 수속비도 요구하지 않읍니다.
● 당신이 귀희학교에서 공부할 자격(학업성적, 재정적 뒷받침, 기타) 이 된다면, 원하는 전공분야, 언어 교육선택이 가능합니다.
● 유럽에서 공부할 경우 1년을 마친 후 미국으로 편입학할 수 있읍니다.
● 미국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외국대학의 경학한 경보 또는 분석이 필요한 경우, 저희를 방문해 주십시요.
● 저희 대학은 TOEFL SCORE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TOEFL 없이도 수속이 가능합니다.
●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과 함께 움직이며 출발후에도 학생과 부모님의 연락처가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28-4383/5
Mr. Cooper 또는 Miss.문

대학생장학금
실시하였읍니다 (주)고려외국어학원 ☎ 744-6000

대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 · 초등학생 · 일반
대학 · 고등학교 · 중학교 · 초등학교 · 일반
대학 · 고등학교 · 중학교 · 초등학교 · 일반
대학 · 고등학교 · 중학교 · 초등학교

대학교육 전환을 모색한다 <8>

——전통의 확산과 변혁에의 의지

대학원 교육의 현주소

최근들어 고등교육의 중추로서 대학이 아닌 「대학원 중심교육」을 강조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대학을 나와서도 과거에 고등학교졸나온 학력정도로 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여 지금부터는 대학원을 나와야만 예전의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사뇌나 대학에서 흔히 들을 수 있을만큼 공공연하다. 이것은 형식적인 양적으로 대폭늘어난 대학인에대해 사회적 평관 (?) 이 낮아졌다는 것만을 외미하는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대학을 졸업하고도 사회에서 기대하는 만큼의능력이나 실력을 발휘하지못보았다. (80년 문교부통계)

그러나 이러한 기대나요구에 상응하는 역할을 대학원이 해주고 있느냐에대해서는 대다수 대학인들은 회의를 하고있다. 현재 K대학원에서 정치학을전공하고 있는 김 모군은 현재 한국의 대학원 교육이 안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은 『양적팽창에 따른 시설과 교수의 부족,그리고 전문적인 강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몇몇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대학은 강의실시조차 제대로마련되어 있지않아 학부강의실내지는 심지어 교수 연구실에서 수업을 받기도하는 실정이라고한다.

이제 대학의 평창만이나 대학원의 증가가 새로운 느낌을 주지 못할 정도로 넘치고 있는 실정에서, 단순한 학위취득이나 사회진출의 우위권 확보를 위해 외국대학원을 찾는다던 역시 대학원 중심의 고등교육은 실효를 거두지못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현재까지 나름대로 육성되어온 슬한대학원을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등교육의 장(場)」이 될수있도록 학부과정에 못지않는 전임교수의 충원과 독자적인 대학원 재원의 확보를 통한 실력있고 능력있는 전문 지식을 소유한 대학원졸업자를 배출해서 두뇌인력이 부족한 사회구석구석에 배치되어야 할것이다. 아울러 대학원이 미이상의 대학화가 되지않고 대학원교육의 특수화를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엄격한 규준을 세워 인가를 해주어야 할것이다.

<박동규 기자>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대학원 중심교육을 강조

대학원 강의 전담하는 전임교수와 강사의 확보 절실

대학원교육의 충실화 기하기 위해 엄격한 인가기준 세워야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너무나 많은 대학졸업자외배람에 따른 사회적 흡수여건의 미흡으로 남보다 좀더 특수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회적 진출의 우위권을 확보하려는 사회적심리의 반영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심리를 잘 반영해주는 단적인 예로 작년말 현재 전국의 대학원수는 169개나 되고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수는 5만 3천 2백69명에 이른다. 그중에 일반 대학원은 67개에 2만 8천명이 달하고있다. 10년동안 일반대학원의 학생수는 무려 5배, 특히 79년부터 81년까지 3년동안 양적으로 급신장세를 보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너무나 많은 대학졸업자외배람에 따른 사회적 흡수여건의 미흡으로 남보다 좀더 특수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회적 진출의 우위권을 확보하려는 사회적심리의 반영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심리를 잘 반영해주는 단적인 예로 작년말 현재 전국의 대학원수는 169개나 되고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수는 5만 3천 2백69명에 이른다. 그중에 일반 대학원은 67개에 2만 8천명이 달하고있다. 10년동안 일반대학원의 학생수는 무려 5배, 특히 79년부터 81년까지 3년동안 양적으로 급신장세를 보였는 시간강사들의 입장이라이 도한 중실한 강의가 이루어지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또한 학부강의를 맡고 있는 한 교수는 『대학원 강의를 맡을 경우 과중한 학부수업을 하기도 힘이들어 대학원 수업에 충실을 기한다는 것은 교수들의 외욕에만 그칠뿐』이라고 말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몇년동안 양적으로 엄청난 증가를 보여준 것과는달리 대학원 수준은 큰 발전이 별로 눈에 뜨이지 않고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한 논문의 수준 또한 과거보다 별어져가는 경향이 있다』는 대학원 모 지도교수의 말에서도 나타나고있다.

대학원교육이 중시되고 거기에 거는 기대가 점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비례한 부자가 선결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대학원을 졸업하는 고급 인력의 배출을 위해서도 대학원교육에대한 체계적인 재인식과 그동안 대학원에대한 문교정책에 있어서도 일련의 변화가있어야 필것으로 본다. 그동안 시설증가나 증원, 신설등의 기준을 엄격히 따지지 않은 채허용해 준 결과 부실한 대학원교육이 그대로 운영되고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것이다. 따라서 대학이나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비례한 만큼의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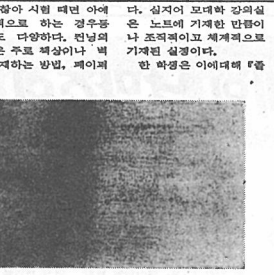
대학원이 안고있는 문제점은 이밖에도 교과과정의 비합리성, 학사운영의 학부이외의 예속, 국내에서 받은 학위로는 시간강사외위 「전임」그 이월적 뿌리는 물론 시험중 부정행위라는 의미가 사전에도 나와있지 않은 묘한 어감의 말마디가 근래에 들어 우리네 대학가를 점점 침식해가는느낌 후유증이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때도 이른바 「전임」이 학부 있는 「부정행위」가 여러형태로 있었다 하니 「전임」의역사는 자못길다할 것이다.

일련 외신이 전하는바에 의하면 유럽 지역 「대학생 컨닝도구 전시회」에 고도의 전자장비를 비롯해기상천외의 수단이 발표된점을 미루어볼때 「전임문화」라 운운하는 말들이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실정이다.

각 대학이 공통적으로안고있는 문제중의 하나가시험중의 부정행위에대한 단속이다. 「전임」이 단속으로 방지되어지는 문제는아니나 일부 학생들은 『처음 학교를 입학 했을당시는커다란 기대와 자부심을가지고 있었으나 막상강의실의 흰벽에 새겨진 깨알같은문구들을 보고실망과 회의를 금치못했다』며 입학 당시와같은 양심의 문제를굳부시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들이 컨닝을 하게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최초 학생들은 컨닝 자체에 대해 협오감을 가지다 학년이 지남에 따라 환멸되다 MT, 미팅등으로 시간을보내고 시험을 맞게 되면 어쩔수없이 컨닝을 하게 된다는 경우, 다른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경쟁한 답안을 위해 안하면 손해이기에 하는 경우, 외우는 것이 귀찮아 시험 때면 아예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등 등기도 다양하다. 컨닝의 방법은 주로 책상이나 벽에 기재하는 방법, 페이퍼(Paper) 를 이용하는 방법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따라서 시험을 치르고나면 교내의 책상이나 벽은 미관을 해칠정도로 싸인펜이나 볼펜글씨가 빽빽히 새겨져 있다.



▲이같은 모습은 강의실 책상위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으로는 비단 본교뿐만아니라 타대학도 마찬가지인데 S·Y·K대등,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컨닝의 흔적은 벽·책상등을 예외없이 아로새기고있다. 심지어 모대학 강의실은 노트에 기재한 만큼이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재된 실정이다.

한 학생은 이에대해 『졸업정원제이후 학생들이 피해의식 때문인지 너무한다 할 정도로 컨닝에 관심을 가지는것 같다』 고 말하고 『만일 컨닝을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느낌이다』 며 상대적인 피해의식마저 가지고 있음을 덧붙였다.

어쨌든 「컨닝」은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소산임에 틀림없다. 더우기 컨닝이 「양심의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이고 보면 이에 대한 수치심과 자제가 철저히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나 사람대 모교수는 『답답해서 옆사람의 시험지를 들여다보는 정도는 그때도 이해가 간다지만 계획적이고 적발시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은 커녕 당연히 할 것을 하다 운이 나빠 적발되었을 뿐이라는 표정을 지을때는 교육자로서의 서글픔마저 느낀다』 면서 강특관없는 동도를 아쉬워했다.

D여대의 한교수는 컨닝방지의 효과는 『보다 엄격한 시험감독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와 머불어 컨닝방지를위한 학생들 자체캠페인을 벌여, 스스로 자제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컨닝이 동서고금 어느 시대 어느때부터 생겨났든지 간에 찌어도 우리네 대학가에서 만이라도 근절되어야할 일임은 분명하다.

강력한 제재와 처벌만이 「컨닝방지」의 능사가 아님을 생각할때 또 열심히 공부한 선의의 학우들에게피해를 주지않기 위해서라는 각자의 양식과 양심에 비추어서도 자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믿음과 신용의 뿌리는 학문하는 기본적 자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일 것이다. 「무갑옥 시험의 정착」을 위해 외대인 전체의 공동노력이 요구 된다 하겠다.

<이경진 기자>

지켜야할 양심의 보루

——시험중 부정행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부정행위」않는학생, 상대적 피해의식마저 느껴

인격에 비추어 스스로 자제해야할 공동의 책임

「부정행위」는 면학분위기의 저해 요소

아쉬운 합목적성

——서클룸 실태를 알아 본다

본교에서는 올해 35개의 신청승인 서클룸 지도교수의 추천문제로 1학기 동안 활동이 중지된 묵요음악반을 제외한 34개의 서클이 활동하고있다. 34개의 서클중 외대문학반을 비롯한 22개의 서클룸이 학생회관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련 연구회등 8개의 서클룸은 사회과학관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토서관 지하에는 정치문화연구회를 포함한 4개의 서클룸이 있어 총34개의 서클룸이 도서관,사회과학관, 학생회관등에 분포돼 있다.

이들 서클룸은 타교와 비교해 볼때 크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위에 있는 편이며 그동안 도난사고 문제가 누차 지적되어온 사회과학관의 서클룸에는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물쇠를 만들어 달아주는등 여러가지 조처를해 주고 있지만 서클 회원들이 이용하는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시정이 요구된다. 학생처는 서클룸의 배치는 기존편을 인정하여 배치하며 주로학생회관에는 문화·종교 서클을 배치하고 사회과학관지하에는 음향관계를 요구하는 서클이나 운동부를 주로 배치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과학관의 서클룸에는 방음장치의 부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어 방음장치 문제를 위해 학교측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 지하의 서클룸과 함께 사회과학관의 서클룸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여름철에 습기문제가 심각한 형편이며 이를 들일 수 있는 환풍기를 설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서클룸을 이용하는 서클원들의 회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은 일요일이나 방학이 돌을 개방하지 않은 것과 평일에 돌의 개방시간이 짧다는 것이다. 특히 평일에 오후 7시만 되면 전원(電源)을 내려 더 이상 돌에 있을 수가 없으며 집회나 공부를 할수 없는 실정이다.

시험기간 중에 도서관의 포화상태를 생각하면 시험 때만이라도 서클룸의 개방시간을 연장, 도서관 대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하며, 가능하다면 일몰시간을 고려해서 평상시에도 개방시간을 연장해 학생들이 돌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또한휴일이나 방학때에도 서클룸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측에서는 과감하게 돌을 개방하는 제도적 보장이필요하다.

서클룸 내부에서 지적되는 것은 냉온방장치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아 여름철에는 그나마 전디어낼수 있지만 추운 겨울은 돌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겨울에 전열기구를 이용하지도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난로의 설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클룸에서의 겨울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아직 스팀등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면 전열 난방기의 사용이나 난로 사용의 허가등도 고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룸내에 있는 기물의 낙후등도 지적되고 있으며 책걸상의부족과 조명장치의 부실등 앞으로 개선되어야할 점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다. 학교에서는 서클의 활성화라는 대명분을 위해서라도 서클인들의 목소리를 들어 진정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주어야 할 것이다.

<허남헌기자>

여초(如初) 김응현선생

기(技)와 미(美)를 펴는 비범한 예인으로서, 마음에 자기 천하를 세우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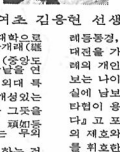
인터뷰

지난 3일 본교 교문에 올려진 교패의 휘호를 해준 여초(如初) 김응현 선생을 찾아 보았다.

동방연서회 회장이며, 국제서도연맹 국제본부 평의원, 중국서법학회 명예회장등의 굵직한 직함이 말하듯 선생은 근 40여년간 오로지 붓글씨에만 초지일관한 서예인으로서 「아직도 배우는 중」이라는일갈에서 겸허하게 기(技)와 미(美)를 펴는비범한 예인(藝人)임을 짐작케 한다.

「서예는 예술의 전부이며 또한 예술이란 지꾸만 기계화 콤퓨터화돼가는물질문명의인간상실에 대한 저항이자 데콘스트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선생은 본교 도서관에 「지난 81년 종합대학으로의 승격을 기념하는 뜻으로 「계왕개래(繼往開來)」라는 휘호를하기도 했다. (중앙도서관소장). 「지난 것을 계승하여 앞날을 연다」라는 뜻으로 종합대학 이전의 외대 특수성을 향후 그대로 계승발전시켜 개성있는 종합대학을 지향하는 본교의 이념과 그뜻을 같이 합한다. (여초선생은 無外하, 頑如등 호를 사용하는데 독서관 휘호에는 무외헌을 사용하고 있다.)

글씨는 그리는 것이 아니라 써야 하는 것임을, 멀틀이 아니라 혼을 뿌리는 것임을 강조. 현실과 예술과의 괴리감에 대해 불자 『항상 그 속에서 살고 있지. 나는 종이 위에 그것을 쓰고 있어』라고 거침없이 답하는 반백의 선생은 마음속에 자기 천하를 세우고 그곳에 필서를 형성, 통일시키는 것이 「서예」임을 주장한다. 유달리 서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흡산들에게서 호뭇함을 맛보았다며 「부지런히 쓰고 또 쓰는것」만이 글씨를 잘 쓰는 비결임을 강조하고 글씨 이외에 전서(篆刻) 에도 일가견을 갖고 있다고….



여초 김응현 선생

현재 국내에서 서예이론에 관한한 「독보적존재」로서붓글씨에 대한자료를 제일많이 소장하고 있는 여초선생은 살고 있기 때문에 「서예」를하고 있다고했다. 을들어 써온 휘호가 몇평이나 되느냐는 물음엔 손을 젖는다. 그렇지만, 그동안 여초선생은 파고다 공원내의 각석(刻石) 에 독립선언서를 휘호했으며 대만의 대북에서 5차례등등경, 홍콩등지에서 모두 10차례의 초대전을 가졌었고 65년부터 82년까지 5차례의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하구적 자세를 읽지않고 현실에 남보다 더욱 성실함으로써 영합이나 타협이 용납되지않는 예도(藝道)를 걸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선생은 본외대학보의 제호와 본교교문인 「도서관·평화·장조」를 휘호한 일중 김충현 선생과는 친형제간이다.

<고영석기자>

참새도 외국어로…

○…흡산들이 고대해 마지않던 교패가 드디어 교문 앞에 제모습을 드러내 목하(目下) 뭇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데, 위는 한자표기요 아래는 영자표기라, 참새로 바꿔이도 외국어로 짖는 곳이 외대라고 믿어온 바이니만큼 이 토한 외대임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는 셈인데 쓰기편하게 할 따름으로 한글을 창제하신세종대왕님지하에서 쓴웃음 짓지 않을까 염려도 되는 바이지만 오는 손님 가는 손님 고개를 가우뚱거리니 혹시 오자라도 난게 아닐까 아무리살펴도 제대로 된것 같기는 한데…?

○…기발고사를 일마 남겨두지 않아 뜨거운 열기가 예상되는 도서관이 졸패이 최후의 날처럼 탕속에 들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있어,

사연인즉 도서관 주위의 담벼락이 자연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묘한 궁리끝에 고목을 쌓아 임시 급한 불을 끄는데 일단은 성공했는데 무녀절 위기의 흙의 인내도 한계가 있는법, 어디까지 이겨낼지 결과가 궁금하기만, 미관도 색 좋은 편도 아니고 곧 장마가 시작되면 젖혀 주택가지 위기에처하게될터인데소일기 전에외양간 좀 고쳤으면…

○…용인 캠퍼스의 연일 수업거부 사태가 한창인 때, 물은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듯 천랑 끼였는 해프닝이 벌어져.

사연인즉 여전부터 어느 정도 수상한 조짐을 보이던 구내식당의 화재 예방을 스프링클러가 제 기능을 발휘(?), 물을 쏟아 부었는데.

밥먹다 물바탕 맞고, 수업거부하여 얻은것 없다며 가슴치는 흡산들, 「정부시책 따르는 것은 만 좀은 철없는 흡산이 미베르바의 통산에 비바도 내렸으면하는 뜻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수업에 원한품고 한 행동은 미욱아닐터이니 조변석개하는 사람 마음은 알다가도 모를일.

○…며칠전 크로니클자 앞으로 이상한전화가 걸려와 데스크를간학 긴장 시켰는데:

지난 369호 본보에 실린 「외대혼과 일의 구심체」를 읽으신 모교수님의 전화로 밝혀져 긴장은 일단 완화됐는데.

『논지(論旨)는 좋으나 모의을 빌픽 폐회식때 외대의 간판학파바 할수 있는 모파의 퇴장에 이어 지조없는 군소학파 명달아 폐회식을 외면해 버린 처사를 따끔히 지적치 않은 이쉽다』고 결국 절책.

크로니클자 쓸아주신 관심에 머리숙여 감사드리을사(事) 「정론과 직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

<이뮬 크로니클>

어느 독자의 질책

여러분의 성공은 대학시절에 쌓은 영어실력이 좌우합니다!

6월호

격조높은 내용에 지질도 새로와졌읍니다.

時事英語研究

주요기사
Why Korea Is Important —한국은 믿음직한 미국의 맹방이다—
Is Real Peace Possible? 소련과 협상을 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
The Bearers of Tomorrow —미래학의 선구자들(후편)—

기획연재
● 당신의 어휘력을 진단해 봅시다 ● 새련된 영어회화 표현법 ● 시사 경제해설 ● 만화영어
● 현대 영미시 세계 ● 세계의 화폐 ● 시빈의어 강좌 ● 임리리엄어 주임캠페인
● 관용어 해설 ● 스크린영어 교실 ● 현대영어의 源流 ● 東洋古典英譯

신연재 ●세계언어들의 이모 저모 ●Situation English

BOOK BONUS POISON 毒

영화대사 과연 잔인한 都市

정기구독 문의처
서울(266)9936(266)9905(265)0509
(273)2588 부산(802)7435(802)7445
대구(45)8890 대전(252)0032 광주(2)2376
전주(2)5328 수원(61)1478 인천(2)4122

보너스 부 정기구독자 접수중!

時事英語研究 값 2,500원

英語世界 값 2,300원

英語世界

한국의 영어학도에게 주는 제언

Anger Defused 분노의 도화선을 잘라라!

생물기술—약속과 위험

What Is a Species Worth? 누굴 죽이고 누굴 살릴 것인가?

영어강좌
● TIME, Newsweek 영어연구
● 세계와론 언어를 익히자
● 만화로 배우는 영어회화

영화대사 007 유어마이아스 오리

(株)時事英語社

時事英語研究 별책 MOOK 제1권

海外留学핸드북

해외유학과 TOEFL 대책

전국 유명서점에서 발매중! 값 3,500원

해외유학에 관한 정보 총망라!!

● Visa 수속과 인터뷰는 이렇게 하라
● TOEFL없이 留学하는 方法
● TOEFL 高得點대책

수강요령과 리포트 작성법
명사들의 해외유학 체험기
현지에서의 생활요령

美대사관 수석영사와의 Interview/
Case별 인터뷰 실제와 요령/
Visa수속 절차와 그 요령/
TOEFL없이 유학한 실제 사례 11가지

해외유학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해외유학절차/
해외유학국과 학교선택은 어떻게 하나?/미국 유학하기 전 꼭 알아두어야할 사항/입학수속 절차/장학금 타는 방법과 그 종류/ 현재에서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TOEFL과 ETS/TOEFL과 수험수속/기타 주요사항(GRE, GMAT).

● TOEFL 실제문제 수록!
○ 大學 선정도 이제 끝났다!

■ 海外留学 수속절차
■ 내 評点으로는 어느大學을?
■ 미국 名門大學 소개
■ 학과별 有名大學 목록
■ 외국대학 장학금 리스트

주문전화 : (269)0623 (261)0256 (株)時事英語社

세계의 낭만주의 <8>

이 철

<러시아어과 교수>

1

러시아에서 조국전쟁이라고 불리는 1812년의 나폴레옹과의 전쟁은 러시아 국민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조국애를 불러 일으키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문학에 있어서도 국민적인것, 민족적인 것에 대한 요구와 동경이 드높아지고 동시에 프랑스 취향의 풍조가 점점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게다가 1820년대를 휩쓸었던 바이런니즘(Byronism)의 물결이 러시아를 강타하여 자유분방한 공상과 감정을 중요시하는 낭만주의가 러시아문학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1810년대부터 근 20년동안지속된 러시아 낭만주의는 제까부리스트(12월당원)의 파멸을 고비로 압력신드롬시대의 전기 낭만주의 문예와 니콜라이 I세시대의 후기 낭만주의 문예로 나뉘어 논할수있었다. 전기 낭만주의는 주콥스끼 (1783~1852) 와바튜시꼬프 (1787~1855) 를 중심으로 자유의 이념과 독자적인 인간의 이념을 부르짖었고, 후기 낭만주의는 다양한 사회적 계층에 의한 독자적인 세계관을 구축했다. 특히 낭만주의 속에서 인텔리겐차는 자기의 문화적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체험했다.

2

18세기말부터 19세기초에 이르는 러시아문학의 여러가지현상 속에서 이미 낭만주의의 싹은 돋아나오기 시작했다. 이시기의 대표적인 문학양식이었던 감상주의는 다분히 낭만주의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감상주의 문학의 특성이었던 인간의 개성과 내부세계에로의관심, 감정과 감수성의 존중은자연스럽게 낭만주의에로 접목되었다. 그러나 문학에 있어서 낭만주의적 경향은 결코 러시아의 독자적인 힘에 의해서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감상주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서구의 낭만주의 문학의 접촉 속에서 발생·발전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낭만주의 문학 성립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니해도 당시 러시아의 사회생활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이것은 서구 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구 제국의 낭만주의가 근본적으로는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로의 변천과정에서 생긴,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낭만주의적 경향도 새로운 자본주의적 원리가 낡은 봉건적 체제와 충돌하려던 역사적 시기에 생긴 것이었다. 따라서 러시아의 낭만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반봉건적인 세계관의 표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것은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점점 더 분명해지는 러시아 사회현실의 허상(虛像)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러시아의 낭만주의는 진환기의 불안한 기분의 대변자였고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혼합된 문학이었다. 여기에 러시아의 전기 낭만주의의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러시아의 낭만주의문학의 개척자는 시인 주콥스끼였다. 비평가인 벨린스끼(1811~48)는 그를 일컬어 『시가(詩歌)에 있어서의 낭만주의의 아메리카를 러시아에 유행하게 되었다. 1815년에 발표된 <뮈온과 에스힌>은 초기의 러시아 낭만주의 문학의 대표작이라고 말할수있었다. 또그무렵의 서정시 <환상> <희망> <가인(歌人)> 등에도 낭만주의적 색채가 짙게 풍기고있다.

|러시아 낭만주의문학의 개척자 주콥스끼|

주콥스끼와 나란히 낭만주의적 성향을 보인 것은 신고전주의 (新古典主義) 에서 출발시인 바튜시꼬프였다. 그는당시 러시아문학 발전에 있어 거기에 러시아적인 색채를 부여하려고 애썼다. 그 즐거리를 간추리면 다음과같다. 『주현절 (主顯節) 날 밤에 같은도시의 처녀들이 둘러앉아 재잘거리며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때 스베틀라나는 혼자 떨어져 연인을 생각하고 있다. 이윽고 밤도 깊어 거울앞에 촛대를 켜놓고 겁먹은 듯 그 속을 들여다 보고 있노라니, 어둠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 그녀를 어둠속의 결혼식으로 유혹했다.

러시아어과 ①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고 썰매를 타고 교회에 당고보니 어느새 말도 썰매도 연인도 간데온데없고 그혼자만이 오두막 속에 앉아있었다. 골포에 밀려 옆의 딜개를 벗기니, 그곳에는 연인이 싸늘한 시체가 누워있었다』 이 발라드의 테마도 낭만적인 것이었거니와 그 속의 시어 (詩語) 역시 민중의 언어로 구사되었다. 이 작품은 당시의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 결국 이러한 종류의 발로드 마어적인 주제의 발라드가 러시아에 유행하게 되었다. 1815년에 발표된 <뮈온과에스힌>은 초기의 러시아 낭만주의 문학의 대표작이라고 말할수있었다. 또그무렵의 서정시 <환상> <희망> <가인(歌人)> 등에도 낭만주의적 색채가 짙게 풍기고있다.

주콥스끼와 나란히 낭만주의적 성향을 보인 것은 신고전주의 (新古典主義) 에서 출발시인 바튜시꼬프였다. 그는당시 러시아문학 발전에 있어 거기에 러시아적인 색채를 부여하려고 애썼다. 그 즐거리를 간추리면 다음과같다. 『주현절 (主顯節) 날 밤에 같은도시의 처녀들이 둘러앉아 재잘거리며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때 스베틀라나는 혼자 떨어져 연인을 생각하고 있다. 이윽고 밤도 깊어 거울앞에 촛대를 켜놓고 겁먹은 듯 그 속을 들여다 보고 있노라니, 어둠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 그녀를 어둠속의 결혼식으로 유혹했다.

전기(前期)는 자유, 독자적 인간 이념 외치고

후기 낭만주의는 다양한 계층에의한 독자적 세계구축

러시아로 하여금 발전케한 러시아의 문학적 룰름부스』라고 말했다. 주콥스끼는 감상주의 속에서 문학적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결내는 감상적인 <감수성>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1808년 민중의 전설에 기초를 둔 환상적인 <류드밀라>를 발표하여 러시아 문학에 새로운 내용과 시어 (詩語)를 안겨다 주었다.

또 1813년에는 신비스러운발라드 <스베틀라나>를 발표하여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고있는 <인간의 내면적 자유>는 정치적인 것이 아닌, 심리적·도덕적인 것이었다. 사실 당시의 러시아의 현실에는 정치적인자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서 바튜시꼬프는 <인간은 황야에 있어서 자유이지만, 사회에 있어서는 노예이다>고 말했고, 주콥스끼 또한 <환상에 있어서만이 자유이며 현실에서는서 사슬만 있을 뿐이다>고 읊었다. 이렇듯 인간의 신분적 평등을 위하여 정치적 투쟁을 고려에 두지 않았던 것이 초기의 러시아 낭만주의 문학의 주관적 휴머니즘이었다고 할 것이다.

주콥스끼의 대표작 <제온과 에스힌>의 주인공 제온은 「나는 인간이다는 위대한 사상에 의해서 나의 마음은 항시 불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간의 존엄을 체험한 휴머니즘을 느낄수 있다. 그때서 비평가 벨린스끼는 <낭만주의적 요소의 발전이 러시아의 휴머니즘의 첫째 조건>이라고하여 주콥스끼의 공적을 높이 평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초기의 낭만주의시인의 휴머니즘은 도덕적,정신적차원에서 머물고있었다.

4

그러나 알렉산드르시대의 후기에는 점차 새로운 경향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적극적(혁명적) 낭만주의라고 불리우는 경향으로 주로 뿌쉬낀(1799~1837)과 제까부리스트의 문학자들이 모색했던 길이었다. 그런데 낭만주의 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성장시키고 적극적 낭만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도의 재능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대한 역사적 임무를 다한 것이 바로 뿌쉬낀이었다.

뿌쉬낀은 초기에 <자유>, <차아다예프에게> <농촌> 등 서정시를 많이 써서 정치와과 사회악을 신랄하게 고발하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루슬란과 류드밀라>를 발표하여 고전주의적 서사시의 수법을부정하고 민화적(民話的)인것과 역사적인 것을 혼합하여 민중예술의 형상과 모티브를 창조했다.

이러한 국민성의 표현은 막연하나마 어떤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동시에 주콥스끼의 낭만주의에서 보여지는 <환상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뿌쉬낀의 정치·사회적 낭만주의는 제까부리스트의 문학자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제까부리스트 시인의 한 사람인 쿠첼리베께르(1797~1846)는 『나의 운명은 행복과 영광으로 가득차 있다. 나는 러시아 민중의 자유를 힘찬 소리로 노래하여 자유를 위한 노래를 외치다가 죽었던 것이다』고 하여 저항당한 제까부리스트의모습을 빌어 외쳤다. 이렇듯 나폴레옹과의 전쟁으로 야기된 강렬한 조국애가 자유로운 조국을 보고 싶다는 갈구로 이어졌다. 이들은 1816년에 <러시아문학애호가 자유협회>를 결성하여 그것이 나중에 혁명적인 비밀결사로 발전되었다.

하지만 뿌쉬낀의 낭만주의는 그의 천부적인 현실적 자질로 해서 마침내는 리얼리즘으로향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향성>을 지니지 않은 순수한 문학의 길이었다. 그러나 뿌쉬낀에 의해 뿌리를 내렸던 이러한 전기의 적극적 낭만주의의 역사적 의의는 큰 것이었다. 뿌쉬낀과 제까부리스트 시인은 러시아인의 사회의식을 높이고 짜리즘과 농노제도에대한 비판을 러시아 전역에 파급시켰다. 러시아를 혁신하려는 낭만주의 문학은 짜리즘으로부터 러시아를 해방시키려는 유일한 무기로써 작용하게 된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바램으로 끝나서 안되는것

—음악감상실 마련을 바란다

여타의 다른 종합대학교와 비교해 볼 때 본교의 공간은 작은 것임에 틀림 없다.

또한 학교의 후생복지 시설 면에서도 다른 학교 보다 훨씬 홀륭하게 잘 시설 되었다고는 머욱 더 말할 수 없다.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복지 시설 가운데에서 교양이나 정서 함양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음악감상실」을 들 수 있다.

물론 음악감상실이 교양이나 정서 함양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고 단언할 만한 아무런 근거는 없지만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Y대를 비롯하여 D대, K대등 많은 대학들이 이미 음악감상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Y대의 경우는 음악감상실을 이용하는 학생이 하루 500여명에 이르고, K대는 음악감상실에 설치되어 있는 150석이 평상시에도 절반이상이 메꾸어진다고 한다. D대의 경우는 「음악취실」에 150석이 마련되어 있고 특별히 여학생만의 음악감상을 위해 「음전실」을 따로 설치하여 학생들의 음악감상을 돕고 있다.

우리학교의 「음악감상실」설치 필요성에 대해 불어과 2학년 S양은 「우리 학교는 마음놓고 쉴 만한 공간도 많지 않은 데 아늑한 음악감상실을 마련하여 좋은 음악도 감상하고 휴식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학교측에 대한 바램을표한다.

본교에 설치된 시청각 교육원은 「언어실습실」 「종합시청각 교실」 등으로 구성되어있어 동양최대라는 세평(世評)을 받고있다고 한다.

그러고 시청각교육원에서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10시~12시까지 AFKN에서 이미 방영했던 드라마를 재방영해 주고 있다.

그러나 AFKN의 재방영뿐만 아니라 동양 최대라는 세평을 받고 있는 훌륭한 교육용 기자재를 십분 활용 「음악감상실」을 설치하여 격조 높은 고전음악과 가곡, 전전한 가요등을 들려 주어 학생들의 좋은 쉴 터를 만들 수 있었으면 한다.

작은 공간에서도 알찬 복지시설이 충만되어 있는 캠퍼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결코 바램만으로 그칠 일은 아닐 것이다.

<문화부>

마음 놓고 쉴 만한 좋은 쉼터는 마련되어야

흐름(流)

박 인 화

학생 수필

낮을 따라서 지금은 마침내 밤의 한가운데에 이르렀다. 시간의 흔적을 곳곳에 남기면서 낮은 새아서 같은 발걸음으로 드디어 한 점에 닿아 온 것이다. 그림자가 나를 닮았듯이, 나무의 형렬이 더불어 너를 닮듯이 세상은 모두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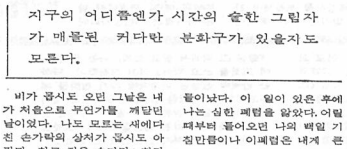
지구의 어디쯤엔가에 시간의 슬한 그림자가 매몰된 커다란 분화구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 탈다면 그곳에는 또 다른 흐름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하듯이 그곳에는 거역할 수 없는 보다 강한 흐름이 시간을 압도할 지 모른다. 두려워진다. 정말 나는 무엇 때문에 겁에 질려 있는 것일까?

한 순간의 머무름도 없는 공간속에서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이 무책이나 위험스러워진다.

나는 어찌 살아가고있는걸까? 존재하지 않는 시간과 순간들 사이에서 그래도 오늘 내가 있을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는가? 그 흐름을 이해하고 싶다. 분산되는 의식을 안으로 응집리면서 단한번만이라도 피부에 닿아보고싶다. 그러나 어찌 한순간도 멈추어 본적이 없는 흐름에 경력 붙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자꾸만 내 주위를 맴돌뿐 나에게는 닿아오지 않는다.

흐름에 대한 생각이 가슴 가득 메워질 때면 나는 나의 그림자를 밟으며 바다를 보러간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보랏빛 띤 이 지구에서 단한번도 혼자인 적이 없었으며 혼자일 수도 없는 것이다. 나도 흐름을 따라가는, 그 흐름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때의 바다는 새침해져 있다. 간간이 찾은 물보라만이 일 뿐 바다의 수면은 잔잔하기만 하다. 「너답지 않구나」 이렇게 말 할 때면 내 그림자는 흔들이 사라진다. 바다의 울음소리가 나는 더 좋다. 바다의 울음은 나를 쉴게만든다. 나는 바다의 설음을 알고있다. 내가 바다를 좋아한 것은 단 한번의 우연을 빙자한 필연적인 만남 속에서였다.



지구의 어디쯤엔가 시간의 슬한 그림자가 매몰된 커다란 분화구가 있을지도 모른다.

비가 몹시도 오던 그날은 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깨달빈 날이었다. 나도 모르는 새에다친 손가락의 상처가 몹시도 아팠다. 희고 작은 손가락 한편에는 선홍색과 엷은 꽃잎의 색갈을 띤 상처가 나 있었다. 그것이 그렇게 예뻐 보일수가 없었다. 상처의 아픔보다는 처음으로 그것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렸었다. 그 뒤에 나는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다. 하지만 처음본 바다에 나는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바다란 푸르름에 못이기어 흰빛속에서 너울거려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내가 본바다는 검푸르기만 했다. 파도도 물보라도 없었다.

바다는 잔잔한 흐름속에서해 살거릴 뿐 나의 바다는 참으로 연약해 보였다. 그런데 그때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젖는줄도 모르는 가랑비가 바이올린의 선율처럼 내 가슴속에 젖아들었고, 그리고는 좀더 부드럽게 내 머릿칼과 옷 속에 스며드는 빗물이, 나중에는 눈도 제대로 뜰수 없을 정도의큰 비가 내렸다. 얼떠부터인가 바다는 조금씩 움직이고있었다. 물이났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나는 심한 폐렴을 앓았다. 어릴 때부터 들어오던 나의 벽일 기침만큼이나 이폐렴은 내게 큰 고통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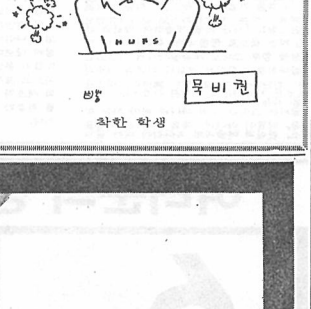
바다와 나의 만남은 울음과 눈물과 오랜동안의 아픔이었다 바다는 나의 가슴에 한줌 가득한 폐의 상처와 눈물과, 그리고 잃지않을 흐름을 주었다. 그후 종종 나는, 나의 바다를 만났다. 바다는 언제나 변함없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다.

바다의 흐름은 시간의 슬한 그림자가 매몰된 무거운 상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는 나와 닮은 그림자가 있듯이 바다는 그의 전신을 비추는 파도와 물보라와 큰 비를 가졌다.

우리는 경해보고 알아야 한다. 바다의 울음 소리를 그 흐느끼는 무게, 드리운 눈물을 가슴으로 나눠야 한다. 바다만큼의 순수, 나무의 푸르름 만큼의 나이테, 그 쌓여진 시간의 모음, 넋의 흐름, 우리의미소와 천년만큼의 쌓아 온 피의 순환처럼, 우리는 가난한 음악속에 살아야 한다. 나는 나의 가난한 바다처럼 그림게, 나무와 바다와 그림자의 색갈을 주우면서 살아가고 싶다.

<영어과·2>

외대만평



착한 학생

빈 나

황 석 용

언젠가 내 방에서 담뱃재 꼬다가
하필이면
담배 기둥이 주저앉아 말았구나
박혀만 있어 주지않고 말았구나
나는 보았오
꼿꼿하게 서 있어야할 박석선 (柱) 들이 제각
기 흩어져서 흉하게 있는 것을
나는 소리 (二) 이나 화전 (花瓶) 에서부터
이제 부숴져 나가는 것을 (大山) 이다 물을 놓지않았오.
맹수에 발톱 찢겨 한한 백골을
간을 기둥이던지, 했던되어지는 아무 것도 의미
를 갖게해선 안돼, 내가 말했지
숙 태양이여 이제 기둥이 흩어졌오
때때로 영원진 기둥이로 파도치던 영원다가 이
내림 받으로 사라지고
그 뜨겁던 지붕의 아픈 기둥은 이제 폭격받던
이 오늘의
슬을 마지막 항상 왜 다깨져 슬퍼진 것인지.

머리 권 속에 알다가 깨다가 내 슬픔을 여
위게 하면
깨달음에 드디나 잉긴 속은 말을
패전 연저리에 숨겨 놓은 것을 깨달음하며
인제 주워져 숨겨 놓은 것을
내 그림자가 숨겨 놓은 것을
내 그림자가 사라져 하는 속에 슬픔의 비명.
아아 꿈은 퍼고 저도 내 그림을 내 슬픔을
피어 그리다 점 점이 없고.

<경제학과·2>

힘찬 젊음과 숨은 저력이 만나는 곳—쌍용

한 기업의 저력이란 쉽게 눈에 보이는것은 아닙니다.
기간산업을 주축으로 한 쌍용의 저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강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읍니다.

대학인의 힘찬 젊음, 또한
그 속에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간직하고 있기에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존중하는 쌍용은
묵묵히, 그리고 꾸준하게 걸어온 그 숨은 힘과끈기로
한 젊은이가 품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서서히 꽃피워 멀베랫을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힘찬 젊음과 숨은 저력이 만나는 곳—쌍용
바로 여기에 쌍용과 젊은이의 최대치가
발휘될 것입니다.

● 쌍용양회/시멘트·레미콘
● 주식회사쌍용/종합무역
● 쌍용정유/정유·윤활기유
● 쌍용중공업/중·소형 디젤엔진
● 쌍용종합건설/국내외 종합건설
● 쌍용제지/크라프트지·가정용 위생지
● 쌍용화훈/해상 운송
● 고려화재해상보험/손해보험

SSANG YONG 쌍용